

별 해는 밤
동류.
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
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.
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
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물립니다.
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
이제 다 못 헤는 것은
수이 아침이 오는 까닭이오.
내일 밤이 남으니까 닥아요.
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.
별 하나의 추억과
별 하나의 사람과
별 하나의 쓸음과
별 하나의 중명과
별 하나의 시와
별 하나의 어머니, 어머니